



소통과 신뢰! 조합원과 함께하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05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nu.kr> 발행일 : 2026.02.13(금)

금속노조 경주지부, 14기 신임간부 교육 성료.

“신임간부의 첫걸음이 노동조합의 큰 힘이된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2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성호리조트에서 '14기, 1년을 함께 책임질 신임간부교육'을 진행했다. 90여 명의 신임간부가 참가한 가운데, 새롭게 간부에 선출된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역사와 간부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올바른 조직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교육은 민주노총 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최해술 지부장은 "경북 곳곳에서 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주 수도 검침원에 대한 대법원의 정규직 판결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장의 부당함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동지들과 연대할 때 노동조합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다짐을 밝혔다.

뒤이어 경주지부 우정식 부지부장이 교육위원장 자격으로 격려사에 나섰다. "90명이 넘는 신임간부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악 대응과 3월 9일 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해 임

원들이 현장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박 2일 교육에 집중하여 알차게 배우고, 2026년 투쟁을 힘차게 전진하자"고 당부하며 본격적인 교육 일정에 돌입했다.



첫째 날 오전에는 조별 소개와 활동 나누기를 통해 교육 참여 목표, 조합활동을 하게 된 이유, 노동조합이 삶과 일터에 가져다준 변화를 나누며 참가자 간 유대를 형성했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과거와 현재, 미래' 영상 시청이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이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흐름을 계승하여 결성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중앙조직임을 확인하고, 금속노조가 왜 산별노조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 짚으며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운동의 정신을 되새겼다.

오후에는 지부 교육위원장이 '경주지부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경주지역 민주노조운동사를 소개했다. 1984년 택시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1986년 삼도물산 여성노동자 투쟁, 1987년 대투쟁 시기 연대파업과 제조업 노조 결성, 1989년 이후 민주 노조 건설 움직임까지, 경주지역 노동운동의 발자취를 전달했다.



뒤이어 지부 교육국장이 '간부의 역할과 자세'를 강의했다. 간부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을 솔직히 짚은 뒤, 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을 목적지까지 인솔해야 할 책임이며, 목적 설정과 조사·분석·판단·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후 참가자 전원이 실천 계획을 작성·발표하며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저녁식사와 뒷풀이로 결속을 다졌다.

둘째 날 오전에는 지부 교육국장의 진행으로 '금속노조 강령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금속노조가 지향하는 자주·민주·통일·연대의 핵심 가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학습을 마지막으로 이번 14기 신임간부 교육은 마무리되었다.

새롭게 조합 활동에 나선 간부들이 노동운동의 활동의 뿌리를 확인하고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 위에 오늘의 노동조합이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노조법 2·3조 개악 대응이라는 긴박한 시기에 치러진 만큼, 간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위에서 진행되었다.

각자의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한 만큼,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앞으로도 간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26년 금속노조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개정 취지 훼손하는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 원하청 단결로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하자

